

# 공정한 선발·세심한 지원·과학적 훈련 '3박자 조화'

## '양궁 코리아' 전 종목 석권 비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전 종목 석권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최정에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양궁협회의 세심한 지원 그리고 협회 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통 큰 지원이 합쳐진 결과였다.

구본찬(현대제철)은 지난 13일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장 사를 발라동(프랑스)을 7-3(30-28 28-26 29-29 28-29 27-26)으로 물리치면서 한국 남자 양궁 사상 최초의 올림픽 2관왕과 함께 양궁 전 종목 석권을 이뤄냈다.

올림픽 메달보다 어렵다고 불리는 리우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최종 명단에 들기 위해 선수들은 수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는 남녀 각각 130여 명이 태극마크의 꿈을 안고 참가했다. 이후 약 8개월간 국가대표 1~3차 선발전을 통해 남녀 각 8명을 올해 국가대표로

260여명 치열한 평가전 6명 뽑아

번지점프·야구장·뇌파 훈련 한몫

현대차그룹 32년간 수백억 지원

선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1~2차 평가전을 치러 최종 남녀 각 3명씩을 뽑았다.

구본찬-김우진(청주시청)-이승윤(코오롱엑스텐 보이즈), 장혜진-기보배-최미선(광주여대) 등 남녀 각 3명의 선수들은 이후 태릉선수촌에 입촌, '올림픽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양궁협회는 이번 올림픽부터 단체전에도 세트제가 도입된 것을 감안해 4년 전보다 일찍 최종 선수 3명을 확정했고, 단체전에서 활을 쏘는 순서도 미리 정해 올림픽 전 두차례 국제대회에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쌓았다.

4년 전 런던올림픽부터 리우 대회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간 대표팀은, 태릉선수촌에 리우 올림

픽 양궁장인 삼보드로무 경기장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모의 삼보드로무'를 설치했다. 또 야구장에서 소음과 조명이 대비해 훈련했고 번지점프, 흑한기 행군, 최전방 철책 근무 등도 했다. 한국 스포츠개발원과 협력해 올림픽 무대에서의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한 뇌파 훈련, 심리상담 등 멘탈훈련도 했고, 선수들이 활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림을 맞춤 제작하는 등 장비 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리우올림픽 과정에서도 지원은 이어졌다. 선수들의 생체리듬을 감안해 출국 일정을 정했고, 선수들에게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제공해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장이 속소와 35km나 떨어진 점을 감안, 경기장 인근에 휴게실을 마련해 선수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원이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32년간 양궁을 후원해온 현대차그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원액은 현재까지 360억~4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미선(앞줄 왼쪽부터), 장혜진, 기보배와 김우진(뒷줄 왼쪽부터), 이승윤, 구본찬 선수가 메달을 들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사상 최초로 올림픽 100m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볼트는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리카냥 올림픽 주경기장의 리우올림픽 남자 100m 결승전에서 9초81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볼트(오른쪽)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는 모습. /연합뉴스

## 레슬링 김현우 오심 딛고 '눈물의 동메달'

16강 편파판정 러시아 선수에 패해 금메달 좌절

레슬링 김현우(28·삼성생명)가 팔이 빠진 고통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현우는 15일 그레코로만형 75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크로아티아 보소 스타르 세비치에 2-0으로 앞서가다 2-4로 역전당했다. 상대에 파테르를 내준 뒤 두 차례 연속 옆굴리기를 당한 것이다. 김현우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을 잘못 디터 팔꿈치가 탈골됐다.

김현우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허리 테클로 동점을 만든 김현우는 아픈 팔로 상대를 들어 다시 2점을 땀다. 그리고 팔을 움츠리면서 상대 공격을 끝까지 막아냈다. 경기가 끝난 뒤 김현우는 매트 위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관중석을 향해 큰 절했다.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느라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김현우는 관중석에서 가서 성원에 답례했다.

2012 런던올림픽 66kg급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우는 이번 대회에서는 체급을 올렸다. 목표로 했던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16강전 라이벌 로만

블라소프(러시아)와 경기에서 석연찮은 판정 속에 5-7로 어렵게 패해 금메달 사냥이 좌절됐다. 판정 논란 속에 김현우에 승리한 블라소프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으로 나온 김현우는 오른쪽팔을 부여잡고 "1회전 옆굴리기를 당하면서 팔을 잘못 집어 빠졌다"고 매우 고소스러워 했다. "4년 동안 금메달을 바라보고 운동을 했다. 아직 아쉬움이 남는다"며 16강 경기를 돌아본 그는 "올림픽을 후회없이 마치려고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다. 금메달을 기다렸을 가족과 국민에게 보답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선수단은 세계레슬링연맹(UWW)에 제소할 방침이었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실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편파 판정은 상대 선수가 러시아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UWW 회장은 세르비아 출신인 네나드 라로비치가 맡고 있지만 심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회장은 러시아인이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 경기장의 2016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 동메달리스트 김현우가 태극기 위에 무릎 꿇고 있다. /연합뉴스

## 볼트, 100m 사상 첫 3연패

9초 81 기록...베이징·런던 이어 금메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사상 최초로 올림픽 100m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볼트는 15일 열린 리우올림픽 남자 100m 결승전에서 9초81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에도 볼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 이어 리우에서도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과 2012년 200m와 400m 계주도 석권한 볼트는 이날 100m 우승으로 역대 올림픽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출발은 불안했다. 이날 볼트는 출발 반응속도 0.155로 결승전에 출전한 8명 중 7번째로 출발했다. 50m 지점까지도 중위권이었지만 이후 폭발적인 막판 스피드로 선

두로 치고 나갔다. 70m 지점부터는 단독 질주를 시작했다. '타도 볼트'를 외치던 저스틴 개틀린(미국)은 볼트의 등을 바라보며 9초89로 2위로 결승점에 도달했다. 3위는 9초91을 기록한 앙드레 드 그라세(캐나다)가 차지했다.

경기 뒤 볼트는 스파이크를 벗고 가족들이 앉아 있는 관중석으로 가 손을 맞잡으며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사진 기자들 앞에서 특유의 '번개 세리머니'를 펼쳤다.

100m 결승은 황제 대관식의 첫 의식일 뿐이다. 볼트는 16일 200m 예선에 출전해 2관왕 달성을 노리고, 자메이카 동료와 함께 400m 계주 금메달도 겨냥한다. 볼트가 리우에서도 3관왕을 차지하면 전인미답의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에 오른다. /연합뉴스

## '2회 연속 銀' 광주체고 출신 김종현

주종목 50m 소총 3자세 예선 탈락

"은메달이라도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광주체고 출신의 한국 소총 '간판' 김종현(31·창원시청)은 지난 14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소총 3자세 본선을 마친 뒤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격 센터에서 열린 이 종목 본선에서 16위(1170점)에 그쳐 결선행 티켓을 얻지 못했다.

앞서 김종현은 부전공인 50m 소총복사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전공인 50m 소총 3자세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

아쉬운 웃음을 짓기는 했지만 김종현은

올림픽에서 2회 연속 입상을 하며 한국 소총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김종현은 "복사에서는 메달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값진 은메달을 따서 좋았다"며 "3자세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안 됐다"고 말했다.

3자세는 복사(엠티드려썬), 슬사(무릎썬), 입사(서서썬)로 구성된다. 김종현은 마지막 종목인 입사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김종현은 "리우에 오기 전부터 감이 안 좋았지만 와서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찾았다고 생각했다"며 "막상 경기에 들어가니 긴장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태리소파·식탁 대전

신상품 다량 입점 8월 25일까지



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